



▶ 교동미술관을 첫 기획초대전

# 민화 속 犬

## 〈개〉

### 金の 기운 담다

〈황금〉

십장생도 등 20여점 선보여... 전시는 28일까지

교동아트미술관(관장 김완순)이 올해 '교동미술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새롭게 출발한다.

교동미술관은 2018 첫 번째 기획초대전으로 '황금의 기운을 담은 민화 전'을 갖는다.

우리 민화는 민족문화의 여러 모습을 폭넓게 담아내고 있다. 그 중에도 생활철학과 감정을 그림 속에 구체화시키면서 민중의 생활 속에 정착, 존속해 왔다.

때문에 민화를 통한 민족의 창의성과 시대상을 엿볼 수 있으며, 생활감정과 미의식을 느낄 수 있는 민족의 문화유산으로 여겨진다.

오는 28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엔 박수학, 김완순, 김영선, 김현미, 이영원, 안순영, 정은희 작가 등이 참여한다.

이들 작가들은 인간과 가장 친근한 동물인 개의 다양한 모습을 그린 작품과 십장생도, 송학도 등 20여점의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작품들은 소박하지만 때론 파격적이며, 익살스럽게 다가오기도 한다.

김완순 관장은 "우리 민화는 현세의 염원을 담아낸다. 그 림마다 상징하는 의미가 다를 뿐 아니라 좋은 에너지를 불어넣어준다"며 "작품을 통해 위안과 생기를 느끼길 바란다"고 했다. 전시는 오는 28일까지. /정해은 기자



▶ 한국화가 송영란 개인전

## '속삭임 - 생각에 닿다'

커피 애호가라고 말하는 한국화가 송영란(52). 그이젠 드립커피 추출에 사용된 여과지까지도 관심의 대상이다.

그는 "드립으로 커피를 내리고 난 뒤에 여과지는 매번 다른 모습으로 다가왔다"면서 "그 자연스러운 모습이 참 매력적으로 보여, 이를 잡지에 찍어 붙이며 새로운 느낌과 변화를 찾았다"고 말했다.

송 작가가 커피 여과지를 재료로 색다른 작품을 완성한 '속삭임-생각에 닿다'전을 전주시 동서화동에 자리한 티모먼트에서 열고 있다.

작가는 수묵과 채색으로 표현해온 이전 작품과 달리, 이번 전시에선 잡지 위에 찍어 붙이는 작업을 통한 서로 다른 색과 감성·변화, 그리고 혼합과 조화를 추구하는 작업을 반복하며 작품을 완성했다.한지에 담긴 여과지는 독특한 화풍을 자아낸다.

그는 "우리는 자연의 일부인 삶을 영유하고 감정을 공유하며, 이를 지속해 나아감으로써 평안과 안식을 얻는다"며 "그것은 자연스러운 변화, 은은함과 부드러움을 통해서가 아닐까 싶다"고 덧붙였다. 전시는 오는 9일까지. /정해은 기자



## 전주영화콘텐츠 발전 견인작 만나기

디지털독립영화관, 매주 토요일 선택 이달 '무직비디오' 등 작품 2편 상영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전주영화제작소·4층)은 전주 영화콘텐츠산업의 발전을 견인하는 작품들을 매주 토요일 선보인다.

올해부터는 지난해 전주국제영화제 상영작을 중심으로 진행된 '매주 만나는 Jeonju IFF'을 'Made in Jeonju'로 명칭을 변경해 운영한다.

'Made in Jeonju'는 전주영화제작소 후반기작 지원사업의 선정작품 또는 지역 영화인들의 작품을 중점으로 상영한다. 1월에는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금태경 감독의 '무직비디오'와 '주성치와 함께라면'을 만날 수 있다.

2015년도 후반기작 지원작품 '무직비디오'는 29살의 영만이 함께 영화를 찍었던 친구들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담았다.

또 한편의 영화 '주성치와 함께라면'은 2017년도 후반기작 지원 작품으로, 오토바이를 훔쳤다는 누명을 쓰게 된 주인공이 누명을 벗으려 노력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친구들이 점점 피해를 입는 이야기를 그린다.

작품은 제18회 전주국제영화제 한국단편경쟁과 제17회 전북독립영화제 온고을경쟁에 진출했다. 제7회 충무로단편영화제 비경쟁부문 가작 수상작이다.

전주영화제작소 관계자는 "Made in Jeonju'는 영화제 외에 접하기 어려웠던 지역 감독들의 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관객들의 지역 영화·영상에 대한 관심을 끌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영화 '무직비디오' (사진 위), '주성치와 함께라면'

두 편의 영화는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연속 상영된다. 각 회차 1시간 전부터 티켓박스에서 선착순(1인 1매)으로 좌석 지정 받은 후 상영 시작 15분 전부터 입장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홈페이지(<http://theque.iff.or.kr>). /정해은 기자

## 전주역사박물관, '겨울방학 박물관학교' 진행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초교 3~6학년 학생 대상

전주역사박물관(관장 이동희)은 겨울방학을 맞아 초등학교 3학년~6학년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박물관학교-누렁개야 함께 가자'를 진행한다.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열리는 이번 프로그램은 개띠 해와 연관된 주제로 구성된다. 사람과 가장 친숙하며 오랜 시간 함께한 개의 역사적·문화적 의미를 알아보고, 다채로운 만들기 체험을 통해 우리 문화를 이해하고 배울 수 있도록 꾸며진다.

1일차인 16일은 입학식을 시작으로 학예사와 함께 개띠 해 특별전을 관람하고, 개에 대한 탐구 및 학습활동이 진행된다.



이어 2일차에는 우리 지역 의견 설화인 '오수의견'에 관련된 전래동화 독서논술 학습과 개띠 해 연하장 만들기, 3일차엔 내 친구 강아지를 가족공예와 나무공예로 만들어 보는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겨울방학 박물관학교는 전주역사박물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띠 해 특별전 연계 교육프로그램"이라며 "개와 인간의 시간이라는 전시 주제처럼 인간의 가장 오랜 친구인 개가 가지고 있는 상징과 의미를 배우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했다.

참가신청은 9일부터 12일까지며, 선착순 20명을 모집한다. 참가비는 2만원.

참가를 원하는 학부모와 학생은 전주역사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정해은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 진심의 별을 키웁니다

## 전주대학교

### 2018 학년도 신입생 정시모집

원서접수 기간 2018. 1. 6.(토) 09:00 - 2018. 1. 9.(화) 18:00 까지

원서접수 문의 전주대학교 입학처 (우) 5506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천장로 303 전주대학교 입학처 입학사정팀 Tel 063 220 3233-9 Fax 063 220 3238 입학지원실 Tel 063 220 2700 Fax 063 220 2658

홈페이지 iphak.jj.ac.kr

전주대학교